

#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권기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실  
미주팀 연구위원  
kskwon@kiep.go.kr

**김진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jokim@kiep.go.kr

**박미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실  
미주팀 전문연구원  
misookp@kiep.go.kr

**이시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실  
미주팀 연구원  
suyi@kiep.go.kr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중남미 제2위의 경제대국이며 제1위의 교역국인 멕시코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적극적인 시장개방과 개혁정책을 토대로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해왔음.
  - 특히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출범은 멕시코 경제성장의 기폭제로 작용하였음.
  -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멕시코 경제는 최대 수출국인 미국경제의 성장 정체에 따른 수출 둔화, 각종 개혁정책 지체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의 요인으로 1990년대의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저성장 세에 머물렀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멕시코 경제는 종전의 무기력증에서 탈피해 새로운 활력을 되찾으며, 중남미 경제의 새로운 성장센터로 크게 주목받고 있음.
  - 최근 멕시코 경제의 변화는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 힘입은 미주지역 생산기지로의 빠른 부상과 페냐 니에토(Pena Nieto) 정부의 성공적인 개혁정책 추진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먼저 최근 멕시코 경제가 미주지역 생산기지로 빠르게 부상하는 배경에는 대외적 환경변화에 기댄 측면이 큼.
  - 중국의 빠른 소득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과 멕시코 간의 제조업 생산비용 격차가 크게 줄어들면서 그간 중국과의 경쟁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던 멕시코가 제조업 생산기지로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음.
  - 미국의 경제 회복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 변화도 미국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로써 멕시코의 전략적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됨.
  - 대내적으로는 완만한 임금 증가와 안정적이며 경쟁적인 환율에 힘입은 제조업 생산경쟁력 확보, 비즈니스 환경 개선,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 구축, 확고한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산업클러스터의 발전 등이 제조업 생산기지로써 멕시코의 매력을 제고시키는 요소로 작용함.
- 1994년 NAFTA 이후 최대 규모의 개혁으로 평가되는 니에토 정부의 성공적인 개혁정책 추진도 최근 멕시코 경제의 빠른 변화를 추동하는 중요 변수임.
  -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은 에너지, 방송통신, 금융 등 산업구조개혁에서 교육, 세제, 노동 등 제도 개혁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함.

-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먼저 총체적인 개혁정책으로 멕시코 경제가 획기적인 발전의 전환점(tipping point)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임.
  - 개혁정책으로 오랫동안 단혀있던 에너지 및 통신시장이 개방되면서 막대한 사업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점도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에 관심을 갖는 또 다른 이유임.
- 이 같은 높은 경제성장 가능성에 힘입어 멕시코는 최근 들어 포스트 브릭스의 대표주자로 평가되어 왔음.
  - 골드만삭스는 2011년 한국, 터키,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멕시코를 차세대 성장시장인 ‘믹트(MIKT)’의 일원으로 선정했음.
  - Financial Times는 멕시코를 2013년 초 동아시아의 경제기적을 이끈 ‘아시아 호랑이’에 빗대어 ‘아즈텍 호랑이(Aztec Tiger)’로 칭하기까지 했음.
- 최근 멕시코 경제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의 멕시코 시장 진출은 일부 투자 진출을 제외하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정체 상태임.
  -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멕시코 시장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FTA 미체결에 따른 차별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됨.
  - 멕시코 경제가 제공하는 막대한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 및 진출방안 마련이 시급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미주지역 생산기지로의 빠른 부상과 니에토 정부의 총체적인 개혁정책에 힘입어 중남미 경제의 새로운 성장 센터로 주목받고 있는 멕시코와의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음.
- 특히 본 연구에서는 멕시코 제조업의 발전 과제와 개혁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유망 협력 및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우리기업의 진출 방안 제시에도 주력하였음.

## 2. 조사 및 분석 결과

### 가. 멕시코 제조업의 부상과 경쟁력 변화

- 2010년 이후 대내적으로 멕시코 경제를 주목하는 이유는 북미시장을 포함한 미주지역의 생산기지로서

제조업의 부상 때문임. 멕시코 제조업의 부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멕시코에서 제조업의 부상은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의 시장점유율 증가에서 확인됨. 2000년대 초 중국과의 경쟁에 밀려 하락세를 보이던 멕시코 공산품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2012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12.5%에 달했음.
- 이 같은 시장점유율 증가는 비교우위지수 분석과 불변시장점유율(CMS) 분석을 종합해볼 때, 기계 및 수송기기의 비교우위 상승과 미국의 수입수요 확대에 힘입은바 컸음.
- 다음으로 멕시코에서 제조업의 부상은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 제고에서도 발견됨.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수송기기산업, 전자산업 등의 성장에 힘입어 2009년 16.7%에서 2013년 17.5%로 증가했음.

● 이 같은 제조업의 부상은 크게 △제조업 생산 경쟁력 제고 △안정적이며 경쟁적인 환율 △비즈니스 환경 개선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전략적 중요성 재인식 등 네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음.

- 먼저 멕시코는 제조업 생산비용 측면에서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음.
  - 최근 10년간(2002~12년) 멕시코에서 제조업 노동비용은 연평균 1.4%에 그쳤음.
  - PWC(2013)에 따르면 2011년 멕시코의 월평균 임금은 467달러로 이미 중국의 523달러를 하회하며, 2030년까지도 이러한 멕시코의 임금경쟁력은 유지될 전망이다.
- 둘째, 안정적이며 경쟁적인 환율도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임.
  - 멕시코 페소화는 튼실한 경제펀더멘탈에 힘입어 다른 중남미 국가나 개도국 통화와 비교해 매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페소-달러 환율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수출 가격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음.
- 셋째, 멕시코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도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일조했음.
  - 2014년 현재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과 비즈니스 환경이 가장 양호한 국가군으로 평가됨.
-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이 오프쇼어링 전략에서 리쇼어링 전략이나 니어쇼어링 전략으로 빠르게 바뀌면서 미국시장 전진기지로서 멕시코의 전략적 중요성이 재평가되고 있음.

● 다음으로 멕시코 제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었다면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중요소생산성을 분석했음.

- 그 결과, 전체 제조업의 생산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 일시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음.
- 그러나 기술수준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중저위 및 중고위 기술산업의 중요소생산성이 저위기술 산업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세부산업에서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특히 고부가가치 수출 제조업에서 중요소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음.

● 이상의 제조업 경쟁력 분석을 종합해 볼 때, 멕시코는 북미시장 전진기로서 뿐만 아니라 남미시장을 겨냥한 미주지역 진출기로서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멕시코가 미주지역 제조업 생산기로서 확고한 위상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① 전 산업에서의 균형적 생산성 향상 ② 수출 공산품의 부가가치 제고 ③ 공식부문 고용 확대 ④ 은행의 신용 공급 확대 ⑤ 제도개선, 혁신,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총체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함.

## 나. 신정부 개혁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 다음으로는 니에토 신정부가 성공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개혁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했음.

- 1994년 NAFTA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개혁으로 평가되는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은 에너지, 방송통신, 금융 등 산업구조개혁에서부터 교육, 세제, 노동 등 제도개혁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함.
- 먼저 에너지개혁은 석유산업과 전력산업의 개방을 통해 산업 생산성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석유 탐사 및 개발 등 하류부문과 발전부문이 처음으로 민간부문에 개방되었음.
- 방송통신개혁은 시장의 독점 해체와 외국인투자 개방에 초점이 맞추어졌음.
- 금융개혁은 금융기관의 여신 활성화와 여신 비용 축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음.
- 교육개혁은 통합적, 포용적, 고품질 교육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었음. 이를 위해 교육정보관리 시스템 도입, 국가교육평가기관 신설, 교원 역량 강화, 중고등 교육의 질과 교육 범위 확대 등의 조치가 취해졌음.
- 세제개혁은 세수확대를 위한 비만세 도입, 소득상위계층 소득세 인상, 부가가치세 통일 등에 집중되었음.

●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멕시코 역사상 최초로 전격적이며 포괄적인 개혁이라는 점임.

- 과거와 달리 멕시코에서 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니에토 대통령의 추진력이 커다란 역할을 했음.
  - 그러나 그보다는 개혁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과 합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둘째, 이번 개혁정책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위기가 아닌 평시에 추진되었다는 점임.
  - 멕시코 역사상 대부분의 구조개혁정책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추진되었음.
- 또한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먼저 총체적인 개혁정책으로 멕시코 경제가 획기적인 발전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임.
  - 실제 개혁정책 추진에 힘입어 멕시코 경제는 추가적으로 최대 2%포인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일각에서는 석유시장 개방의 직간접적인 투자 효과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평가함.

## 다. 한·멕시코 경제협력 현황 및 평가

- 한·멕시코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한국과 멕시코의 경제관계를 무역, 투자, 제도협력으로 대별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음. 먼저 무역관계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한국과 멕시코 간의 무역은 빠른 성장을 보였음.
  - 2013년 현재 멕시코는 한국의 11번째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중남미국가 중에서는 최대 무역흑자국임.
  -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은 최근 들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총수출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위상은 2008년 2.2%에서 2013년에는 1.7%로 하락했으며, 멕시코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도 2009년 4.9%에서 2013년에는 3.5%로 줄었음.
  - 최근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 부진은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쏠림 현상 심화(10대 수출품목 비중 74%, 2013년), 낮은 완성재 수출 비중(27%, 2013년) 등 수출구조상의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음.
  - 양국간 무역관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대멕시코 무역흑자가 매우 크다는 점임.
  - 멕시코 무역통계로 대멕시코 흑자규모는 119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2013년 멕시코 전 세계 무역적자(11억 달러)의 10배에 달하는 규모임.
- 다음으로 투자관계를 살펴보면 멕시코는 최근 멕시코 경제의 부상을 겨냥한 우리기업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의 10대 투자대상국으로 발전했음.
  - 2014년 8월 기아자동차의 투자 발표(10억 달러)가 실현될 경우 투자대상국으로서 멕시코의 위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그러나 양적인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의 투자는 ① 글로벌 생산기지로의 활용 ② R&D 등을 통한 현지기업과의 협력 ③ 치안불안 해소 ④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책 확대 ⑤ 금융지원 확대 ⑥ 멕시코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유치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음.

● 마지막으로 양국간의 제도협력을 살펴보았음.

- 우리나라는 2005년 중남미국가와는 처음으로 멕시코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은 이후 다방면에 걸쳐 제도적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음.
- 특히 2013년에는 중견국 협의체(MIKTA)가 결성되어 국제무대에서 멕시코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2014년에는 양국간 최고위급 상설 협의체인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가 신설되었음.
- 무역 및 투자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제도협력부문에서도 이제 양적인 팽창보다는 내실화에 신경을 써야 할 단계가 된 것으로 평가됨.

### 3. 정책 제언

#### 가.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

●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한·멕시코 경제협력 전략과 구체적인 확대방안을 제시했음.

- 특히 미주지역 생산기지로서 제조업의 부상과 포괄적 구조개혁정책 추진에 따른 멕시코 경제의 빠른 환경변화에 우리정부 및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마련에 주력했음.
- 멕시코 경제의 환경변화는 우리나라에게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고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전략과 방안마련을 위해 멕시코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앞에서의 분석을 종합해 양국간의 경제협력환경을 분석했음.

● 먼저 외부환경을 살펴보았음.

- 외부환경은 멕시코 경제의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기업의 진출에 도움이 되는 기회요인과 사업활동을 저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위협요인으로 구분해 분석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주요 기회요인으로 ① 미국 제조업 전진기지와 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 ②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 안정적 성장 ③ 대규모 인프라투자 확대 및 개혁정책에 따른 사업기회 확대 ④ 저렴한 노동비용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음.
- 그 밖에 구조개혁의 경제성장 효과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노동 및 교육 개혁에 따른 전문인력 공급 확대, 투자진출 확대 및 분야 다변화 등도 기회요소로 제시했음.
- 특히 우리기업들은 니에토 정부의 개혁정책이 멕시코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음.

- 멕시코 경제의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기업들이 느끼는 위협요인으로는 ① 치안불안 ② 복잡한 행정과 관료주의 ③ 전력, 도로 등 인프라 부족 ④ 노무관리 및 조세부담 증대 ⑤ 개혁·개방에 따른 시장경쟁 심화 및 경쟁력 약화 등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음.
  -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기업들은 치안불안을 가장 심각한 위협요소로 지적했음.
  
- 다음으로 내부환경을 강점과 약점으로 나누어 고찰했음.
  - 내부환경은 우리기업이나 정부가 갖고 있는 협력 역량과 자원을 의미함. 먼저 우리기업이 갖고 있는 강점은 ① 높은 기술 경쟁력 ② 적극적 시장개척의지 ③ 마케팅 능력으로 분석되었음
  - 우리 정부 혹은 국가의 강점으로는 ① 첨단기술 강국의 이미지 ②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산업화 경험이 선정되었음.
  - 특히 한국의 강점 요인 중에서 멕시코는 니에토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과 과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할 만큼 우리의 개발경험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우리의 약점으로는 ① 현지문화 이해와 교류 부족 ② 시장 정보 부족 ③ 정부의 지원 부족 ④ 멕시코 시장에 대한 관심 부족 ⑤ 현지시장에 대한 실질적·심리적 거리감을 제시했음.
  - 그중에서도 우리기업들은 멕시코 현지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 부족을 가장 심각한 약점으로 지목했음.

표 1. 한·멕시코 간 내외부적 경제협력 환경

강점(S)	약점(W)
1. 높은 기술 경쟁력 2. 적극적 시장개척의지 3. 첨단기술 강국의 이미지 4. 마케팅 능력 5.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산업화 경험	1. 현지문화 이해와 교류 부족 2. 시장 정보 부족 3. 정부의 지원 부족 4. 멕시코 시장에 대한 관심 부족 5. 실질적·심리적 거리감
기획(O)	위협(T)
1. 미국 제조업 전진기지와 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 2.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 안정적 성장 3. 대규모 인프라투자 확대 및 사업기회 확대 4. 저렴한 노동비용 5. 자동차, 전기, 항공 등 분야의 클러스터 발전 6. 제조업 생산성 향상 7. 개혁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8. 전문인력 활용 개선 9. 투자진출 확대 및 분야 다변화	1. 치안불안 2. 복잡한 행정과 관료주의 3. 인프라 부족 4. 노무관리 비용 증대 5. 조세부담 증가 6. 개혁에 따른 시장경쟁 심화 및 경쟁력 약화

자료: 저자 작성.



## 나. 한·멕시코 경제협력 전략 및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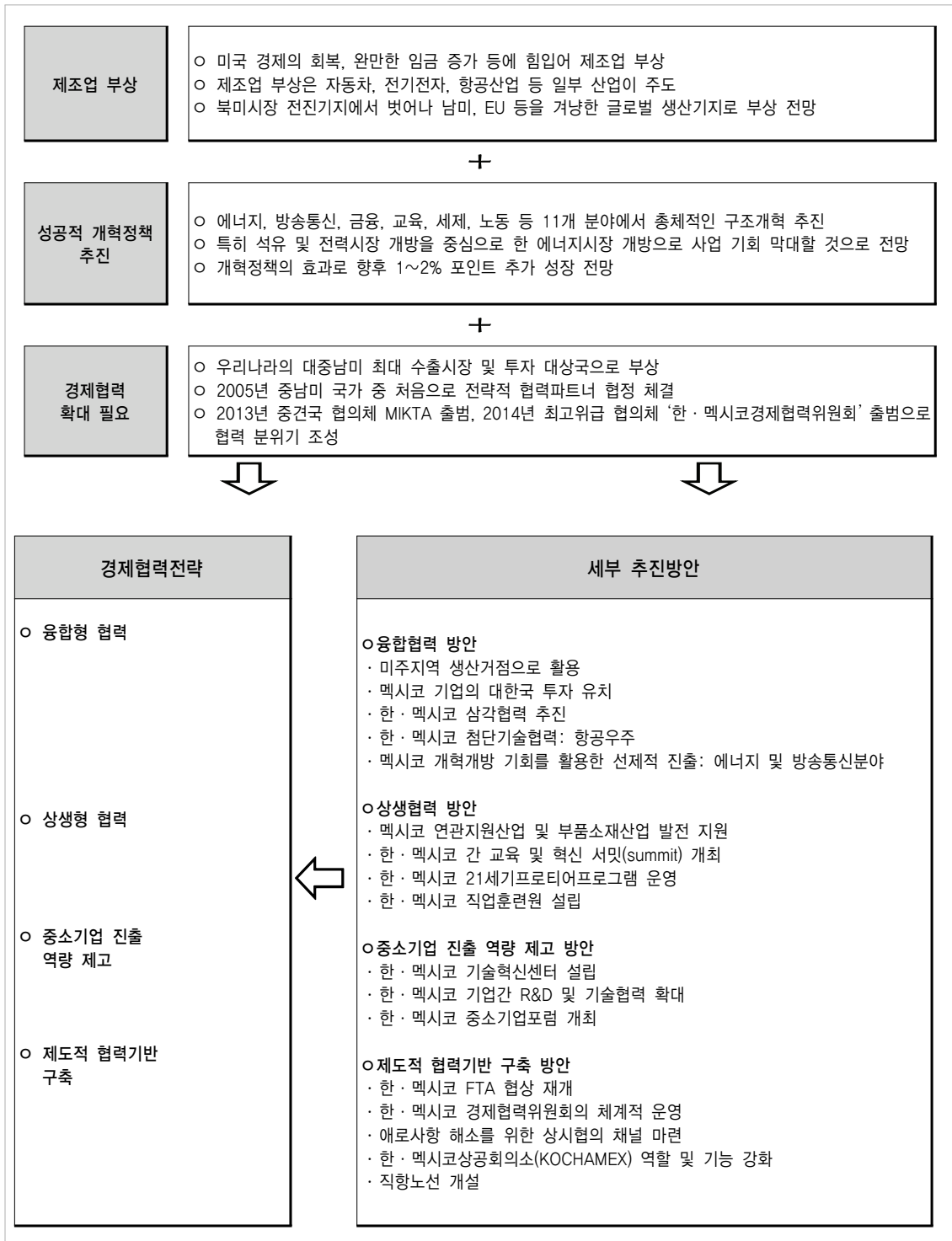
- 이상의 내외부적인 경제협력환경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융합협력 전략, 상생협력 전략, 중소기업 진출 역량 제고 전략,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전략 등 4대 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별로 세부 협력방안을 제시했음.
- 융합협력 전략
  - 한국의 강점과 멕시코의 기회요인을 결합한 융합협력 전략은 양국이 갖고 있는 각기 다른 분야에서의 장점을 상호 결합하여 최강의 협력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략임.
  - 이 전략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 멕시코가 중미·카리브 지역에서 갖고 있는 높은 정치경제적 영향력과 개발협력 경험,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융합한 삼각협력방안 ② 멕시코 기업의 대한국 투자 유치 ③ 항공우주산업 등 양국간 첨단산업부문 협력 등을 제시했음.
  - 기업차원에서는 북미시장 진출거점으로서 뿐만 아니라 남미 진출거점으로 멕시코를 활용하는 방안, 에너지 및 방송통신분야에서 멕시코의 개혁·개방 기회를 활용한 선제적 진출방안 등을 제시했음.
- 상생협력 전략
  - 상생협력 전략은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비교우위, 성공적인 산업화 경험 등을 활용해 멕시코 경제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임.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① 멕시코 연관지원산업 및 부품소재산업 발전 지원 ② 한·멕시코간 교육 및 혁신 서밋(summit) 개최 ③ 한·멕시코 21세기프로티어프로그램 운영 ④ 한·멕시코 직업훈련원 설립 등을 제시했음.
- 중소기업 진출 역량 제고 전략
  - 중소기업 진출 역량 제고 전략은 멕시코의 기회요인을 이용하여 한국의 약점을 개선하는 협력 전략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멕시코 시장 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전략임.
  -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멕시코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발견한다 해도 정보, 자본 및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진출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이 전략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진출 역량을 배가시키는 데 있음.
    - 이 전략의 실천방안으로는 ① 중소기업을 위한 공적금융 지원 강화 ② 중소기업의 현지 기술협력 및 기술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멕시코 기술혁신센터 설립 ③ 양국 중소기업의 협력 네트워크의 장으로서 한·멕시코 중소기업포럼 개최 등을 제시했음.

- 또한 기업차원에서는 멕시코기업의 대한국 기술협력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해 멕시코기업과의 R&D 및 기술협력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음.

●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전략

- 제도적 협력기반 구축 전략은 멕시코 시장에서 우리기업들이 갖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고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제도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임.
- 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①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②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의 체계적 운영 ③ 현지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시협의 채널 마련 ④ 한·멕시코상공회의소(KOCHAMEX) 역할 및 기능 강화 ⑤ 직항노선 개설 등을 제시했음.

그림 1. 한·멕시코 경제협력 환경 및 협력방안



자료: 저자 작성.